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 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습, 또한 그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온 모습들을 볼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2장에는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미리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때 이 정탐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라합과 그 가족들은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31절에는 이 라합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한 명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더 나아가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과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수3:17). 오늘 3장 15절 이하에는 그 배경과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이 때는 요단강에 물이 많이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자 그 때까지 흐르던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은 저 멀리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하류로 내려가는 물은 그대로 흘러 내려 갔습니다. 여리고 앞 요단 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강 바닥에 있던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그 밤에 유숙할 곳인 길갈에 쌓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끊어주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셨고 그 마른 땅이 된 강을 자신들에게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 성을 필두로 그 일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5장을 보게 되면 매우 특이한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자신들의 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잔뜩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도 보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안 광야에서는 할례를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지금 상황도 할례를 시행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시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할례 없는 자(수5:7)"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성립 되었음을 몸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시행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할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민족과 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수5:9)"를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 보내는 것을 '굴러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길갈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의 말씀을 연속으로 나열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

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는 두려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앞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였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하신 것처럼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에 앞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도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에서 살아가던 라합이 이제 광야를 떠돌던 민족인 이스라엘을 도와 주는 것은 다름아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왕 시혼과 옥을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분께 나의 생명의 안위를 맡겨드리는 것으로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동안 4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왔지만 이제는 그들의 앞에 가나안 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단이라는 강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매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에 발을 담글 때 그 흐르던 강물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매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저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견고하게 서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길갈에 세워졌고 여리고성을 이루고 있던 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에 앞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여 애굽의 수치를 보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분을 얼마만큼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